

세계화를 지향하는 대학과학교육의 문제점

국제화시대라는 단어가 전혀 낯설지 않은 요즘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역동적인 개혁과 발전의 파고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수용하고 있는 더 발전된 미래를 기억해야 하는 사회적 요구와 책임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 바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 전 분야의 노력도 절실하겠지만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인재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연구해야 할 대학의 임무와 봉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중에서도 과학교육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하겠다.

초·중·고등학교때의 열악한 실험실과 과학교육에 대한 의지와 투자는 기초 교육의 중요성에 비해 너무나 무시되어 왔다는 것을 누구나 경험해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 사회구성원을 위한 기초교육의 제도, 행정, 재정의 산적한 문제는 전문인 양성을 위한 대학과학교육의 기대와 환상으로 잊혀져 왔다.

그러나 언젠가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상급학교로 갈수록 오히려 교과과정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유 중 대부분은 열악한 시설과 장비로 나타났다. 이것이 세계화를 지향한다는 우리 대학의 밝지못한 상황인 것이다. 공과대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가 일본 동경대의 1/10 수준에 불과하고, 교수 1인당 담당과목수는 교수의 연구기능을 수행하기에 어려울 만큼 과도하다. 또 교수 1인당 학생수는 미국의 3~5배에 이르며 대학의 연구비는 70% 수준이다.

자연계 연구실적의 지표인 SCI(Science Citation Index)가 일본의 1/10 수준에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선진국의 수년전 교육비의 1/3~1/5 수준에 불과하다. 부족한 물적 자원 속에서 우수한 인적 자원이 지금까지 이뤄온 결실의 토대가 되어 왔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뒤져있는 과학교육의 수준으로는 현재의 자리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투자속에서 과거의 주먹구구식 사고와 단지 높은 교육열과 투지만 가지고는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다. 지금보다 더 높은 단계로의 도약은 과감한 교육투자와 잘못된 교육체계, 교과과정의 개편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대학의 교육과 연구기능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조건인 교육시설의 부족은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게 만들었고 대학의 질적 저하는 그 만큼의 낙오를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적 지원과 관심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지식의 진보는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학교육이 대중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대학의 물질적인 교육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더해질 때 발전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사회진보에 필요한 인재의 양성이라는 대학과학교육의 목적은 개인뿐 아니라 우리 사회와 기업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와 국가, 기업의 관심과 지원은 다시 주체들에게 환원되어 더욱 발전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요즘 일부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의 관심과 지원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으며 더욱 많은 대학과 폭넓은 분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과학교육이 올바른 궤도에 오르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강진
(성신여대 화학과 박사과정)